

“불교의 효는 대승적 愛人사상”

김주곤교수 '한국불교사기에 나타난...' 서 주장

일체중생 내부모 자비실천 강조 “현대사회 병폐 치유위한 근본윤리”

“불교의 효사상은 인간을 중시하고 사랑하는 애인사상(愛人思想)이며, 이것은 만민이 일체평등한 불성을 갖고 있다는 불교사상을 토대로 한 인간공경사상이다.”

김주곤교수(경산대 대학원장)는 지난 4~5일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열린 국제비교한국학회 주최 제5회 학술대회에서 ‘한국불교사기에 나타난 효사상’ 발표를 통해 자식의 절대적 복종과 의무를 요구하는 유교의 효와는 달리 불교의 효는 부모에 대한 보은뿐 아니라 부모의 성불까지도 추구하는 대승적 의미가 강하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불교사상은 고려말기(서왕가)로부터 출발해 조선시대를 거쳐 최근까지 주로 승려들에 의해 창작돼와 대중교화에 널리 기여해 왔다. 문화사적으로도 가사문학의 원동력이나

사대부가사, 평민가사 등과 더불어 가사문학의 한 갈래를 이루었다고 평가된다.

김교수는 이들 불교가사에 정토·인과·연기사상을 바탕으로 한 효사상이 뚜렷이 나타나 있다며 <한국불교가사전집>에 실려있는 불교가사 70편을 분석, 불교의 효사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교수가 구분한 효는 상대성을 지닌 측면에서의 세효(世孝)와 출세효(出世孝), 단효(單孝)와 광효(廣孝), 동질성을 지닌 측면에서의 사효(事孝)와 이효(理孝), 행효(行孝)와 화효(化孝) 등 여덟가지.

세효가 일반적으로 부모를 모시고 병양하는 세간적 효라면 출세효는 부모에게 불법을 수행하게 해 정토에 왕생하게 하는 것. 단효는 지금 당장 부모의 뜻을 받들고 따



佛說大報父母恩重經圖 如來頂禮

르나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며, 또 양육의 은혜에 보은하는 사효 광효는 세세생생 일체 중생에 두루 효행하는 것으로 모두가 자신의 부모라고 생각하는 것이며 이들은 불교가사인 ‘권선곡’ ‘선심가’ 등에 잘 나타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양육의 은혜에 보은하는 사효와 마음을 밝혀 덕을 닦아 도에 이르는 효인 이효는 <별회심곡>에 잘 나타나 있으며, 임금이 충성하고 덕을 참구함으로써 효를 행한다는 행효와 효를 행하는 사람이 다른 사

람으로 하여금 감화되도록 하는 화효는 <왕생곡>과 <전살인곡> 등에 묘사돼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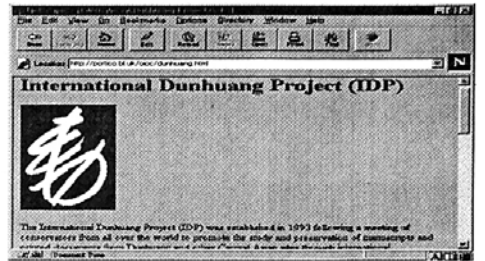
그러나 유교의 효가 절대적이고 권위적인 부모에 대한 자식의 절대적인 복종과 의무를 가리키는 것과는 달리 불교의 효는 부모의 자비에 대한 보은과 감사뿐만 아니라 부모로 하여금 성불케 하는 것으로 ‘출가’가 부모처자를 버리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들까지 모두 구제한다는 넓은 의미에서의 효행의 한 방편이라는 것. 즉 불교의 효는 단순히 현세적 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내부모 내 마음 내 몸처럼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효사상은 황금만능주의·이기주의·기능주의와 인간경시사상 및 인간의 폐쇄성 등 현대사회의 인간이 안고 있는 병폐에 대한 방과제인 동시에 병든 사회를 건강하게 치유할 수 있는 훌륭한 이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불덕(佛德)을 예찬하고 불법수행을 권하는 내용으로 내려온 불교가사에서 이처럼 효사상이 깊숙히 배여 있는 것은 가정과 사회, 국가의 근본윤리가 효에서 비롯됨을 나타내 주는 것이며,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효교육 부재’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교의 효사상 확산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명우 기자

부다피아 사이트 여행



국제돈황 프로젝트

19세기 초부터 본격적으로 발굴되기 시작한 세계적인 불교유적 돈황의 현재까지의 발굴 현황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국제돈황 프로젝트’(이하 IDP)라 불리는 이 사이트에는 IDP 소개 △돈황의 전경 △발굴품 △최근 IDP 뉴스 등이 불자 네티즌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IDP는 중앙아시아 돈황에서 발굴된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공동연구를 고양하기 위해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중국 등이 참여한 돈황 국제 학술 단체.

적인 유적지. 또한 돈황에서 다양한 문화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아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실크로드가 타클라마 사막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갈라져 다시 돈황에서 합쳐지기 때문에 실크로드로 전파됐던 모든 문화를 한 곳에 모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이 사이트를 방문하면 4세기에 제작된 불상과 8세기 쓰여진 금강경 등을 비롯해 돈황내의 갖가지 경전과 불상에 대한 설명과 선명한 화보를 볼 수 있다. 또 중국 당나라 시대의 의학사, 남북조시대를 풍자한 벽화, 발자리(星圖) 등의 의학·정치학·천문학과 같이 다양한 고대 문화 유산을 접할 수 있다.

주소는 ‘http://portico.bl.uk/oic/dunhuang.html’이다. <육>

부다피아 사이트 여행

단 신

보문사 영산회상도 등 5점 서울·강원 유형문화재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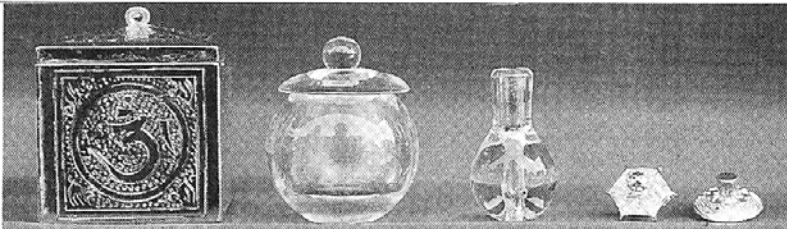
불교문화재 5점이 최근 지방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대한불교 보문종 보문사(주지 범준) 대웅전 영산회상도와 신종도(神宗圖) 묘승전 지장보살도가 지난달 30일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또 강원 양양군 서면 서림리 서림사지 석조비로사나불좌상과 3층석탑이 1일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으며, 동해 지방사 칠불좌상은 지방사 칠불좌상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보문사 문화재 3점은 모두 1867년(고종 4년)에 만들어진 것이며, 서림사지 석조비로사나불좌상과 3층석탑은 각각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 것으로 시대적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직지’ 활자 복원보고서 출간

청주고인쇄박물관(관장 김광식)은 지난 95년 10월부터 현존 세계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 하권에 사용된 약 7천여자의 활자를 복원하고 최근 <‘직지’ 활자복원 보고서>를 펴냈다.



감은사 동탑 부처님 진신사리 재봉안

지난 4월25일 감은사 동3층석탑을 수리 해체하던중 발견된 사리가 재봉안됐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은 지난 4일 감은사에서 불국사주지 설조스님을 비롯 종단관계자와 지역기관장, 불자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진신사리 재봉안식을 갖고 사리 5과와 사리병 사리기 등을 봉안했다.

이번에 봉안된 성보는 진신사리와 사리외함

(청동주물제작 금박·사진 원쪽), 전각형사리기, 작은 사리병(수정), 사리병뚜껑 받침(순금), 큰사리병(수정), 은제 사리함으로 사리함과 사리기가 문화재관리국의 보존처리후 국가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이다

총무원이 새로운 사리함을 제작, 봉안기와 함께 재봉안했다. 새로 제작된 사리함은 1960년 감은사지 서탑에서 발견된 사리함 사리기(보물 366호)를 복원 제작했다.

중 ‘독물 바다에 삽년토록 헛되이 먼 번방 지키니’라는 구절에서 ‘헛되이(空)’의 표현은 승병으로서의 자신의 처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으며, 자신을 무리를 잃은 외기러기에 비유함으로써 대승적 차원의 구국 활동중에서도 수행자 본분에 대한 갈등이 깊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기에 빠진 나라와 중생을 구해야 한다는 대승적 차원의 승병활동 속에서도 깨달음을 추구하는 순수한 수행자 본연의 길을 동시에 걸고자 했기에 결국 후세까지 면면히 이어지는 선맥의 한 일기를 이루었다고 이교수는 설명했다.

(우)

“전장에서 사명대사의 고민은 무엇이었나”

이진오교수 ‘밀양지역 문학...’ 세미나서 발표

임진왜란시 국가적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고 일본에까지 건너가 3천명을 구해 돌아오는 등 혁혁한 전공을 세웠던 승병으로 널리 알려진 사명대사. 10년을 넘게 활약한 전장에서 사명대사가 수행자로서 가진 남모를 고민은 무엇이이었을까.

이진오교수(부산대 한문과)는 지난 9월 19일 부산대에서 열린 한국문학회 주최 ‘밀양지역 문학의 전통과 현재’ 주제 세미나에서 ‘일과

과 사명대사의 문학’ 발표를 통해 승병으로서의 자기회생 속에서도 수행자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깊은 고민이 사명대사의 문집에 잘 나타나 있다고 주장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해 곧바로 참전해 7년간의 전쟁이 끝난 후에도 성과를 축조하는 등의 일로 계속 중군했던 사명대사가 정유재란 다음해인 1599년 자신의 심회를 표현한 ‘기해추봉별변주서(己亥秋奉別邊注書)’라는 시는 자신이 처한 처지와 감정을 함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서 사명대사는 자신의 종군을 ‘형명으로 어쩔 수 없이’라는 뒤안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적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사명대사의 귀심(歸心)은 이 시를 쓰기 4년전인 1596년 조정에 산으로 돌아가기를 청했던 비문과 행장의 기록에서도 나타난다.

또 진전지방을 지나면서 지은 시

해외 비구니·여성불자 불교변혁·사회참여 활발

쇼드론스님·마틴여사 출판 인터넷에 호소

최근 들어 출판과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 여성불자의 수행과 권리옹호 그리고 사회참여 등이 다양하게 소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중에서 <서양에서의 비구니 삶과 수행>과 <영적 도반> 등의 책과 인터넷사이트 ‘불교에서의 여성운동’(http://www.lancs.ac.uk/staff/milton/women.htm) 등이 주목된다.

교의 변혁을 기대하는 글. 각국에서 존경받는 비구니와 여성불자들의 인터뷰 형식으로 기록된 <영적 도반>에서 마틴 여사는 “비구니 비구니의 차이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헛수고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러한 이분법을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불교의 전통은 신중히 연구돼야 한다. 내가 내뱉던 모든

“인습억압 벗자” 여성운동 공감대 형성

<서양에서의 비구니 삶과 수행> (영국 스노우라이언 필)의 저자 쇼드론 스님은 서언에서 “동시대 여성불자들은 불교의 변혁에 참여하고 있다. 인간의 평등이 보편적인 선행원칙으로 인정받는 시대에 걸맞게 인습적인 억압을 벗어던지려는 여성불자를 지켜보는 것은 기습적인 일이다”라고 조명했다.

그리고 서양불교가 직면한 문제를 지적하고 여성불자의 공감대 형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쇼드론 스님의 적극적인 주장에 비해 마틴 여사가 쓴 <영적 도반> (영국 토르스 필)은 여성불자들의 수행에서의 보편성을 지적하며 불

비구니 스님들과 여성불자들은 나름대로의 수행에 충실하게 전념하고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불교에서의 여성운동’은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홍보하고 호소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이들 중에는 지난 91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수지여사, 스리랑카의 여성불자위원회 회장 찬드라여사 등 사회운동가들의 동정과 사진을 등재하고 있다. 이외에도 티베트의 비구니스님을 지원해주는 ‘나르조마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제공해 주고 있다.

오종욱 기자

신속하고 깔끔한 새로운 차원의 DM서비스 (주)아림DM

전자동 기계화 시스템의 새로운 DM서비스-대량의 우편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시간과 비용절감을 원하십니까? - 자동화시스템으로 해결합니다.

아림은 제작, 포장 발송의 전과정을 자동화시스템으로 구축, DM발송에 드는 시간과 기본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1시간에 15,000부를 소화할 수 있는 우편물 처리능력을 가진 아림의 자동화시스템은 우편물 포장 중앙 관리장치로 입고부터 생산·발송·사후처리까지 작업의 전과정을 일괄적으로 관리 통제하여 대량의 우편물을 정확하고 빠른 속도로 처리합니다.

아림은 전문화된 DM서비스로 보내는 이의 우편물 한장 한장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홍보를 원하십니까? - 기획, 발송까지 온라인 시스템으로 구축했습니다.

아림은 전문홍보기획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각종 DM, 범회지, 안내문의 제작까지 책임집니다. 인쇄방법, 지질, 색깔 모양 등 모두가 자유입니다. 기획에서 발송까지를 온라인시스템으로 운영, 체계적인 홍보전략을 실현합니다. 목적에 맞는 효과적이고 생생한 DM의 효과를 경험하십시오.

성실한 서비스를 원하십니까? - 아림은 철저한 프로페셔널 정신으로 업무에 임합니다.

성실한 서비스를 실현합니다. 아림은 기계화된 포장시스템과 넓은 보관공간, 신속한 운반시스템으로 고객의 우편물을 훼손없이 안전하게 전달하고 제공된 자료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아림에 맡겨진 우편물들은 사소한 과정에도 소홀함이 없으며 전과정이 꼼꼼하게 관리됩니다.



취급 우편물·Packaging, 신문·잡지·카탈로그·서적·카드 등 3중 우편물 포장방식·종이포장·비닐포장·수축포장·신원포장 등 다양한 방식의 DM서비스로 대량의 모든 우편물 취급